

새터민의 남한 사이버 교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현아(金賢娥)**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의 남한 사이버 교육 경험을 질적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버학습 경험이 있는 새터민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표집방법은 눈덩이 표집으로, 자료 분석은 Libeblich, Tuval-Maschiach, & Zilber의 내러티브 분석법으로, 3명의 분석자(임상심리학 박사수료 1명, 상담심리학 박사 2명)에 의해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를 근거로 새터민 사이버학습 경험을 분석한 결과 8개 범주, 24개 하위영역, 82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8개의 범주는 낮은 남한의 교육 체계, 학습상황에서의 대인관계 특성,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으로서의 고충,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을 위한 고려사항, 새터민의 학습스타일, 새터민의 학업 동기유발,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지지체계, 새터민 사이버학습의 기대 효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후, 연구의의와 추후 연구를 제안하였다.

■ 주요어 : 새터민, 성인교육, 사이버학습 경험, 내러티브분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새터민은 2009년 5월까지 총 16,241명이 국내에 입국, 그 중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북한시절 직업은 노동자와 무직인 경우 88%이며, 학력별로는 고등중졸이 70%이고 전문대졸이상은 16%에 해당된다. 이중 2009년 10월

* 본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 연구사업 선정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 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현재 사이버대학 재학 새터민은 119명으로, 2006년 1학기 31명에 비해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일부 내부자료). 한편, 북한의 교육권은 학습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의무교육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경제사정 악화로 의무교육제는 거의 붕괴상태에 빠졌으며, 교육에 대한 당적 통제, 학습활동의 자유권과 교육에 대한 학습기회의 보장권 침해로 교육에 있어서 인권보장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김평선, 2007). 남북한은 체제 및 교육 형태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며, 두 국가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될 때 생겨나게 되는 교육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탈북 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새터민들은 낯선 남한사회 문화를 익히고 적응에 필요한 기제를 마련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교육경험을 거치게 된다. 특히, 새터민 성인들은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남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한편, 남한의 사이버 교육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의 성과 향상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도입되어 왔다. 2001년부터는 사이버대학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2010년 6월 현재 17개 고등교육법 상의 사이버대학교와 2개 평생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교가 있으며, 교육기본통계조사(2009년)에 따르면 94,500명의 학생이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인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평생교육과 재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사이버교육은 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 학습형태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유평준, 2003). e-learning은 상호작용적 학습 환경,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의 제공, 열린 학습체계, 온라인 검색활동, 다양한 전문가적 관점들의 제공, 편리한 사용 환경, 용이한 온라인 지원체제, 실제적인 문제해결 환경과 협동 사회 환경의 제공, 비용면에서의 높은 효과, 면 대 면 학습방식과 비교했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반복수강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정혜진, 2009).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화 되지 않은 북한사회에서 생활하였던 새터민들이 IT강국인 한국사회에서의 사이버 교육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새터민 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령기 청소년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강희석, 2007; 김미숙, 2004; 김선혜, 2005; 이수정, 김현아, 원재연, 윤상석, 2008; 이혜경, 2003; 조영아와 전우택, 2004; 최경자, 2008), 새터민 청소년들은 남한의 교육경험에서 대개 언어의 이질화, 나이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소외감과 열등감,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친구 사귀기가 힘들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고 수업시간에 교사와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박하나, 2006). 이렇듯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문화에서 당면하게 되는 새터민들의 학습경험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겠고, 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 환경에 적응하고 타협해 나가는 가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새터민들이 남한 사이버대학교의 교육제도 및 교육환경

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교육적으로 성장하고 적응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교육경험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교육적 통합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선행연구

새터민의 대학교육 경험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왔고, 새터민 청소년 학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업 동기나 학업 부적응에 관련된 대학생활의 어려움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중 이해경(2003)의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총 7명의 북한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였는데, 대학 진학을 준비할 당시에는 남한 교육 수준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부족하여 혼란스러움과 난감함을 경험하면서도 '대학진학을 남한 정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낯선 대학 체계와 내용,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도 하였다.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힘들어했으며 특히, 영어 및 남북한 간 학습방법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쉽게 정을 주지 않는 남한 친구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여 우울함과 외로움, 죄책감, 집중력 장애를 경험하면서도 힘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아와 전우택(2004)의 연구에서 북한 출신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의 어려움은 (1) 학업과 정보습득에서 능력의 한계를 경험, (2) 인간관계의 어려움, (3) 타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의 어려움, (4) 심리적인 어려움, (5) 학업과 경제적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6) 미래와 취업에 대한 걱정, (7) 자기만의 정체감 형성의 어려움이었다. 박정희(2006)가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8명을 면담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학업중도포기 이유는 기초학력부족으로 인한 학업문제, 정체성 미비와 경험부족에서 오는 대인관계 문제, 목적의식 없는 대학과 전공 선택,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터민 청소년들의 교육경험이 새터민 성인 학습자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특히 새터민 성인 학습자의 교육적 상호작용이나, 성인의 정규교육과정으로서 사이버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사이버학습에 있어서 학습자 특성은 학업수행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Dixon(2000)은 온라인 학습공동체에서 학습자의 개인과제와 협력과제 수행 경험, 팀 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경험, 학습자의 지식수준이 학업수행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특히, 강의에 대한 호감도는 학업달성에 대한 의지와 관련되며 학습에 대한 낮은 호감도는 학업달성에 대한 의지결여로 학업을 피하게 되고 자신이 배울 능력이거나 전략, 기술 등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Printrich & Schnuk, 1996). 그 밖에도 권성호(2001)는 사전지식 및 학습자원 등 촉진환경이 충분할수록 새로 학습해야 할 정보의 지각, 선택, 기억, 저장, 인출이 쉬워지고,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가 높아지

므로, 학습에 대한 인지적 몰입이 촉진되고 학습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에서 볼 때, 새터민들의 학습자 특성이 어떠한 지 그리고 이들의 학습자 특성이 학습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교수자 특성이나 학습내용, 학업에 대한 촉진요소 등도 효율적인 사이버학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이버교육의 특성상 교수자와 학습자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교수자는 단순한 지식의 제공자가 아닌 촉진자이며 학습의 안내자로서 교수자의 학업수행에 대한 격려와 촉진 그리고 안내 등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Moore & Kearsley, 1996). 이때 적절한 강의스타일의 정도가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높이고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ulford & Zhang, 1993). 정인성과 최성희(1999)는 원격교육의 중도탈락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학습내용 자체가 학습자의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론적이라서 흥미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사이버학습에서는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 이해력 향상 및 인터넷 기술 등을 실제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목표를 향한 의식적 활동 및 행동적인 학습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강인원, 최지호, 이성근, 2005). 새터민들이 사이버 공동체 공간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은 남북한 통일 이후 성인교육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새터민들이 남한에서 입국하여 겪게 되는 교육경험은 외국의 이주난민의 학습경험에서 이론적 토대를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의 이주난민들은 개인적, 문화적 어려움과 더불어 학교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는다(Bemak & Chung, 2002). 이주난민 학생들은 학업성적의 평가기준 차이에서 오는 적응의 문제와 스트레스가 더 해진다(Bemak & Chung, 2003). 교육평가의 도구 자체가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만들어진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이다. 학급규제의 기준과 학교에서의 행동에서의 차이가 더해지면서 과외 시간에도 이주난민 신입생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게 되고, 학업에 대한 기대감과 개인적 성장이 생활방식 및 세계관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이주난민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가 학업성공의 가치를 문화적 동화, 건강, 사회적 연계망, 문화적응, 기쁨, 즐거움, 흥미와 같은 질적인 측정에 두기 보다는 성적순위, 시험 점수, 자기수행, 학급순위, 능력별 학급편성, 승부와 같은 경쟁적 성공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rtzberg, 1998). Roh(2002)가 미국 한인 이민 1세대 성인 36명과 심층면담 한 결과, 자녀 교육, 직업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등의 정보를 얻고 싶으나, 그들이 부딪히는 언어장벽은 이용 가능한 정보원의 범위를 제한하며, 이민자의 사회적 고립과 주류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의 다른 이주민에 관련된 연구(이재환과 윤유라, 2005; Fisher, 2004)에서도 소수민족 주변의 도움보다는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과 같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인 정보원에 대한 의존성은 경제적 빈곤, 문화적 차이, 소외감, 인종차별, 소극성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였다. 성인학습자로서 새터민 성

인들 또한 문화적 차이와 편견, 소외, 의사소통, 학업차이 등을 경험할 것으로 보여지나, 남한으로의 이주 이후 학습상황에서 교육적 배제와 통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새터민의 정보 빈곤 유발요인은 공급자 중심의 정보지원 체계, 정보지원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의 미비, 정보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언어소통 능력의 부족, 정보기술 활용능력의 부족, 정보인식 수준과 교육수준의 한계, 정착생활의 태도와 자세의 한계가 그 원인이다(조용완, 2006). 한편, 새터민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KADO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음악/라디오듣기/영화보기, 신문/잡지/뉴스보기 다음으로 업무 및 학업관련 정보검색인 것으로 나타나(조용완, 2006 재인용), 새터민들은 오락이나 게임 등이 아니라 상당한 비중 업무 및 학업관련 등의 긍정적인 목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강상현, 강홍렬과 김은미 및 차남경(2002)은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적 방식(top-down approach)이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정보소외계층의 사회적 조건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방식(bottom-up approach)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새터민과 같은 정보소외계층의 사이버학습 경험을 이해한다면 이들의 남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교육은 지식정보 사회에서 일부계층에 의해 이루어졌던 지식과 정보의 독점화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며, 지식과 정보의 다양한 생산과 이에 따른 창의력의 발휘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최성우, 2000). 따라서 새터민들에게 있어 사이버 공간이라는 네트워크와 자원을 통해 공식적인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배경의 남한사람들과 교류하게 됨으로써 문화적 수용력과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으며, 배움의 시기를 놓친 새터민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터민들의 보다 효과적인 사이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대학교 경험이 있는 새터민들의 사이버학습 경험들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효과적인 e-learning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지원체계 서비스체계를 마련한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으로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사이버학습 경험을 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 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 그들 자신의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새터민 사이버학습자들은 어떠한 교육경험을 하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대상자는 새터민 사이버 학습 경험이 있는 새터민 10명이다. S사이버대학교 2명, K사이버대학교 1명, K디지털대학교 1명, K디지털대학 2명, O사이버대학교 4명이었다. 이들 중 사이버대학교 졸업자는 2명이었고, 나머지는 8명은 모두 재학생으로서 각각 2년 4명, 3년 3명, 4년 1명이었다. 이들의 전공은 사회복지학, 경영학, 세무회계, 평생교육, 중국어문화, 디지털 콘텐츠이다. 남한 거주 기간은 3년~8년으로 평균 5년이며, 성별은 남 2명, 여 8명, 평균연령은 41세이다. 북한에서의 최종학력은 고등중졸 2명, 전문학교 졸 2명, 대학중퇴 2명, 대학교졸 4명이고, 졸업 후 남한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새터민은 2명이다.

2. 자료 수집

이들의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 중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하였다. 1차적으로는 연구자와 평소 라포 형성이 되어 있는 새터민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고, 대상자가 면담 후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새터민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사이버대학교 교수 중 새터민 재학생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표집방법은 희귀한 표본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표집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새터민과 그들의 추천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의 사이버교육 대상자들이 대부분 성인학습자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성인학습자 관점에 기초한 학습자들이 사이버 학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 태도 및 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질문지는 “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이버 학습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주로 언제 학습을 하시는지요?”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선호하는 교수의 수업스타일은 무엇입니까?”, “효과가 있었던 학습방법은?”, “강의 과정 부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수업시간 중의 학습 이해도 및 이해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등 반 구조화 된 형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구성하였다.

면담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상담교수와 새터민 대안학교 교사 경력 5년 이상인 자가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2009년 6월 초에서 2009년 8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면담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 대상자의 독립된 사무실, 비교적 소음이 적고 칸막이가 설치된 커피숍에서 진행되었다. 면담은 일대일로 진행되었으며, 소요시간은 70분에서 120분 정도였다.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은 반구조

화 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부가적인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였고, 더 이상의 내용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다음 질문을 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소형녹음기로 녹음되었고, 면담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상품권을 주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새터민의 남한사회 사이버학습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들 중 내러티브 분석을 사용하였다. 내러티브분석을 선정한 이유는 면담이나 문헌연구에서 제공된 삶의 이야기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문화적 환경에 의해 구성된 실재(reality)를 중요시(Lieblich, Tuval-Mashiach, & Zilber, 1998)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분석 방법 중 Lieblich 등(1998)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Lieblich 등(1998)은 내러티브분석 방법을 전체적 내용(holistic content), 전체적 형식(holistic form), 범주적 내용(categorical content), 범주적 형식(categorical form)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교육학에서 이야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통적 방법인 (Riessman, 2005) 범주적 내용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새터민들이 한국에서의 사이버학습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이야기 주제들을 범주화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분석 단계는 첫 번째, subtext 선택이다. 전체 본문은 내용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연구 질문이나 가설에 근거해서 본문 전체가 subtext나 새 파일을 형성하기 위해 재정리된다. subtext는 삶의 이야기 전체 내용에서 선택된 것으로, 독립적으로 다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녹음된 내용을 중심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전사분량은 A4 용지로 220장 정도였다. 녹취록 완성 후, subtext 선택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내용범주화 정의이다. 가능한 한 열린 마음으로 subtext를 읽으면서 감정, 행동, 신념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의 범주화를 정의한다. 분류된 문장들을 통해 이들의 경험이 삶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은 자료를 범주화 하는 다음 단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자료들을 범주화 하는 단계로,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전 과정은 2명의 공동연구자와 함께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of the material)으로 진행하여 본 분석에 있어서의 민감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네 번째 단계는 결과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낸다. 공동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재수정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분석한 내용을 메일로 발송하여 재 승인을 받았다. 각 범주의 문장들이 정리되고 도표화되어 연구가설이 이 단계에서 검증되어졌다. 내러티브분석을 위해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 박사 2명과 임상심리 박사과정 1명으로, 전 분석 과정에 참석하였다. 심층 면담 한 내용을 정리한 녹취록과 분석방법을 공동연구자에게 전해주고, 6회 총 70시간에 걸쳐 만나 분석단계별로 각자 분석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총 정리 후, 정리한 내용을 공동연구자들의 메일로 발송하여 확인과 수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III. 결 과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를 근거로 새터민의 한국에서의 사이버교육 경험에 대해 질적 분석한 결과, 8범주, 24하위영역, 82개념을 도출하였다. 연구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 표 1> 새터민의 사이버 교육 경험 분석

개 념	사 례	하 위 영 역	범 주
남북한의 지식격차	2/10		
남북한의 교과목 차이	5/10	남북한 교육문화 차이: “현대판 타임머신”	낮선 남한의 교육체계
틀에 박힌 북한의 암기식 교육	5/10		
다양하고 자율적인 남한의 사이버학습	5/10		
객관식 평가의 수월함	6/10		
남북한 용어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6/10	언어소통 장벽	
단어 학습 보조 장치의 필요	7/10		
새터민을 이해하는 교수에 대한 믿음과 의지	3/10	영향력 있는 교수의 존재	
교수와의 직접적인 교류선호	6/10		
학습동기로서 교수의 지지와 격려	6/10		
남한동료와의 동등한 경쟁심 추구	3/10	교우관계의 경쟁문화에서 인정받기	
동료인정에서 얻은 기쁨	4/10		
함께 하고자 하는 새터민 동료의식	5/10		
남한지인에게 도움요청	4/10		
도움요청에 대한 미안함	3/10	익숙하지 않는 도움요청	학습상황에서의 대인관계 특성
사이버 공간에서만 적극적인 학습도움 추구	2/10		
생소한 단어는 인터넷 검색으로	3/10		
무지노출에 대한 걱정	6/10		
공개적인 사이버교류 기피	3/10	학습 교류 기피에서 공개로의 이행	
게시판의 적극적 활용	4/10		
댓글을 통한 인정과 지지경험	4/10		
새터민의 학업중단에 대한 우려	3/10	새터민 사이버 학습에 대한 충고	
자기관리가 중요한 사이버학습	4/10		
새터민 정체성 밝히기	5/10		
배움을 목적으로 한 순수한 학업충고	4/10		
남한의 레포트 수준 타진해보기	4/10	학업스트레스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으로 서의 고충
레포트 작성의 어려움	5/10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	4/10		
초기 학습적응의 어려움	6/10		
나이로 인한 학습부담	4/10	학업의 장애요소	
학업과 직장병행의 어려움	5/10		
자녀양육으로 인한 학업부담	2/10		
대학생활 안내의 필요성	5/10	새터민을 위한 배려	새터민

새터민 특화교육 희망	3/10	요구	사이버대학생을 위한 고려사항
새터민에 대한 학교의 관심 요구	3/10		
경제적 안정 우선	5/10		
사이버학습 기초로서의 컴퓨터 활용능력	5/10	효과적인 사이버학습을 위한 선행조건	사이버대학생을 위한 고려사항
사이버학습 동기로서 학업열의	5/10		
사전학습으로서의 남한생활 경험	4/10		
실제 사례중심의 이해용이	3/10	선호하는 사이버 강의형태	새터민의 학업 스타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교수방식 선호	3/10		
칠관강의 선호	7/10		
동영상 강의 선호	2/10	선호하는 학습형태	새터민의 학업 스타일
반복학습 추구	5/10		
남북한 비교설명을 통한 이해	5/10		
실제적인 강의내용 집중	3/10	효과적인 학습방식	새터민의 학업 스타일
시각적인 자료를 통한 기억	3/10		
지식습득을 위한 메모활용	3/10		
체계적인 학습습관	3/10	필승적 각오와 부단한 노력	새터민의 학업 동기유발
학습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7/10		
학습지속에 대한 강한 의지	8/10		
나이를 뛰어넘는 배움에 대한 도전	3/10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학습의 즐거움	새터민의 학업 동기유발
부단한 학습노력	8/10		
북한시절 우수한 학업성적	3/10		
남한학업에서 인정받은 경험	5/10	오프모임에 대한 견해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지지체계
학업성취로 인한 기쁨	3/10		
새터민 동료모임의 필요성	2/10		
오프모임의 필요성	4/10	오프모임에 대한 견해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지지체계
새터민 편견으로 인한 오프모임 참석의 어려움	2/10		
마을 열기까지의 두려움으로 인한 경계심	2/10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	7/10	학습에 대한 가족의 역할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지지체계
학습동반자로서의 가족	5/10		
학습에 대한 가족의 지지	8/10		
멘토의 필요성	4/10	힘이 되어주는 멘토	새터민 사이버학습의 기대효과
적극적인 새터민 멘토 활동	5/10		
IT 강구에서 정보습득 통로 익히기	7/10		
꿈과 목표추구로서의 남한의 학습	4/10	사회적 성취관문의 역할	새터민 사이버학습의 기대효과
남한사회에 필요한 지속적인 자기계발	2/10		
가족 내의 학습모델링 효과	5/10		
가족에게 사이버 학습 권유	3/10	사이버 학습에 대한 전이	새터민 사이버학습의 기대효과
새터민 동료에게 사이버학습 권유	5/10		
반복강의의 잇점	4/10		
사이버학습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혜택	5/10	사이버대학의 잇점	새터민 사이버학습의 기대효과
시공간을 뛰어넘는 학습 가능	4/10		
학업과 직장병행의 용이함	5/10		
혼자서 하는 것이 편리한 사이버 학습	3/10	새터민 역할의 중요성	새터민 사이버학습의 기대효과
통일 이후 사명감	4/10		
북한문화 안내자로서의 역할	2/10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 교양지식	2/10	학습의 부수적 효과	새터민 사이버학습의 기대효과
대학생으로서의 자긍심	6/10		
새터민 동료의 부러움	2/10		
앞으로 인한 대인관계 자신감	2/10		

1. 낯선 남한의 교육체계

1) 남북한 교육문화 차이: “현대판 타임머신”

남북한의 사회구조적 차이로 인해 새터민들은 남북한 지식 격차를 실감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 10은 남한사회가 마치 “현대판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하고, 자신들의 교육수준은 백지상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새터민들은 남북한 지식격차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다 알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모를 때가 많아서, 강의를 들을 때에도 역시 어려운 문제로 부딪힌다고 말한다. 남한의 교육환경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남북한 교과목 차이로 인하여 자본주의와 관련된 생소한 교과목들이 많고, 북한에서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서로 다른 교육내용으로 배웠기 때문에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는 뭐 우리하고 뭐라고 할까, 사회구조 자체가 너무 틀리잖아요. 이 자체가 30-40년 뒤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뭐 현대판 타임머신으로 왔으니까. 저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나 같잖아요. 백지장인데.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 강의할 때는 다 알 것 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르는 때가 많거든요(사례10).

새터민들이 경험하였던 북한은 틀에 박힌 암기식 교육을 통해 학습을 하였던 사회였다. 이러한 북한의 틀에 박힌 암기식 교육방식에 대해 사례 7은 자기생각이 아닌 “짜여진 대본을 주고 외워서 쓰는”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입식 교육에 비해 새터민들이 경험한 남한의 사이버학습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토론이나 질문, 게시판, 레포트에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동영상, 음성, 칠판강의와 같이 다양한 교육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학습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다채로운 남한의 교육 문화가 새터민들에게는 낯설지만, 점점 더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만들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에서는) 주관식이 많은 데, 그건 어디까지나 딱 짜여진 대본을 주는 거죠. 고거를(그것을) 외워서 쓰는 거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창의가 아니에요(사례7).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새터민들에게 사이버 공간 자체도 생소하고, 게시판, 쪽지, 강의 다운로드, 레포트, 팀 프로젝트와 같은 사이버 교육 방식이 낯설기만 하다. 또한 퀴즈, 단답형, 객관식, 토론 등과 같이 다양한 남한 학습평가방식으로 인해 새터민 학습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사례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하는 북한의 교육에 비해 삶의 경험이 풍부한 새터민

성인에게 남한의 객관식 평가는 비교적 수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객관식 평가의 수월함으로 인해 새터민 성인 학습자들이 학업에 몰두하고 매진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듯하다.

그런 건 여기가 좀 쉽다고 해야 할까 왜냐면 객관식이니까 주관식 같은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해야 하니까, 바쁘니까(힘드니까), 객관식은 사람이 외운 것도 뭘 하나 퉁겨주면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객관식은 그런 것인데 그런 건 좋더라고요.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게 좋아요(사례6).

2) 언어소통의 장벽

새터민들은 한 민족이지만 남북한의 한글문화는 생소한 말, 맞춤법에서부터 숨은 뜻에 이르기까지 차이점이 있고 이로 인해 남한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한다. 학습상황에서 흔히 쓰고 있는 레포트, 중간고사, 기말고사나 엠티, 멘토 등의 한자어, 외래어식 표현의 언어소통에 장벽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새터민들은 학습상황에서 모르는 영어가 나올 때 마다 당황스럽다고 하며, 한글말로 따로 적어서 익히기도 하지만, 사이버학습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이나 검색창과 같은 단어학습 보조 장치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말한다.

말을 모르니까 컴퓨터에 들어붙어서 그 말을 또 찾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로 창에 찾아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싶었어요(사례2).

2. 학습상황에서의 대인관계 특성

1) 영향력 있는 교수의 존재

새터민 성인 학습자에게 교수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낯선 사이버학습 환경에서 새터민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교수자에게 강한 신뢰감을 보였다. 학교의 직원이나 학습동료보다는 교수가 직접 멘토를 연결해주거나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등 다양한 교수역할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 사이버 공간 속에서 교수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나아가서 교수와 직접적인 면담이나 전화 요청 등의 교수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선호하였다. 특히, 교수자의 피드백에서 보여주는 지지와 격려는 사례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새터민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켜주고 있다.

쪽지 답 글이 왔는데.. 처음 글자가 **학우님 레포트 쓰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쁜 데 더 어떻게 이쁘게 봐줍니까 잘 쓰셨습니다 하고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쁘지도 않는데 이쁘

다 하는 게 좋고..글도 내가 볼 때는 많이 허접하고, 빈 구석이 많은데..그 모자란 것을 첫 평가를 그렇게 해주니까. 사람이라는 게 칭찬이란 게 좋은 거 같아요. 내가 못해서 누군가 나를 잘 한다 잘 하면요. 아..싫어도 그 의무감이 있어서..열심히 하면..아..어렵듯이 알게 되더라구요. 아..열심히 하게 되더라구요(사례4).

2) 교우관계의 경쟁문화에서 인정받기

새터민들은 남한 학습 동료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면서 동등한 경쟁을 추구하려고 하며, 새터민들 동료학습자에 대해서는 강한 동료의식을 보인다. 사례 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새터민이라고 불쌍하다 동정하고 봐주는 것보다는 남한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를 원하였고, 남한에 온 이상 한국 사람과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서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새터민들은 남한의 학습 동료들이 자신들의 과제를 참고하거나 인정해줄 때, 커다란 기쁨을 느끼고, 힘이 된다고 하였다. 사이버 학습상황에서 게시판은 자신의 과제가 다른 남한의 학습동료에게 샘플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한 학습동료들이 댓글을 통해 인정을 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학습동료들과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터민들은 남한의 경쟁문화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경험하게 되는 듯하다.

대단한 거는 아니고, 살아남자니까, 열심히 해온 거지요. 내가 살아남자니까. 근데 이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보고 그러니까. 어느 탈북자가 잘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말아라. 그 사람보다 더 나은, 한국사람, 잘된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라. 니(너의) 라이벌로 잡고 그 카고 따라가기 위해서 해라.(사례9).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는 새터민들 끼리는 자주 연락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업을 함께 하거나 학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교류하였다. 함께 하고자 하는 새터민들 동료의식은 북한의 사회주의 풍토와 더불어, 사이버 학습의 효과성을 미리 경험한 새터민들이 남한에서 뒤지지 않고 성공하기 위한 '우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3) 익숙하지 않은 도움요청

새터민들은 학습상황에서 물어 볼 내용이 너무 많고 일일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였다. 남한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새터민들에게는 질문거리가 되고 잦은 질문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상대방 특히 남한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폐쇄적인 북한문화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힘든 현실이었고, 이러한 익숙하지 않은 도움요청 태도는 학습상황의 대인관계에서도 여전히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더군다나 남한사회 생활에서 겪게 되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무지는 새터민들이 학습상황의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듯하다.

그런데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데, 대고 물어 보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자꾸 질문하자니까(사례9).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도움요청에 대한 미안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소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새터민들에게 인터넷 검색에 대한 의존이 훨씬 더 두드러진 듯하다. 인맥이 부족하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한계가 있을 때에는, 사이버학습 경험이 있는 새터민 선배나 평소 친분이 있는 남한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주로 비공식적인 정보원에 의존하였다. 일부 새터민들은 토론에서 남한의 학습동료들이 어떻게 글을 올리고 생각을 하고 있나 관찰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동아리나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학생간의 상호의견을 주고받는 등의 적극적으로 사이버 학습교류를 보였다.

그런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은 인터넷 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한국에서 흔히 쓰는 유행어도 저희한테는 생소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그저 뭐 저는 기본 **를 많이 사용하는데, 검색창에다 치면 바로바로 말이, 답이 나오거든요. 모를 것도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겠더라고요. 지금은...(사례10)

4) 학습교류 기피에서 공개로의 이행

많은 새터민들은 남한사회에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모를 때마다 자주 질문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무지를 밝히는 것이라는 우려가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무지노출에 대한 걱정은 자신들의 무지가 공개되는 공식적인 사이버 교류를 기피하게 만들기도 한다. 생활총화와 같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자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북한문화에 익숙한 새터민들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많은 남한사람이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이버학습상황에서 새터민이라는 출신이 드러남과 동시에 자신들의 무지가 발각되어 공개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모르는 말도 너무 많고 하니까 그 선생님한테도 한 두번 물어 보기가 쉽지 자꾸 물어보면 이 무식한 걸 자주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컴퓨터로 하다가 왔다고 하니까 그다음엔 이 선생님도 막 웃는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모르니 우습지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안타깝지..(중략). 어떤 교수님은 정말 난 저래 새터민이라고 그래서 무식하다고 밝히니까 너무 모르니까 진짜 선생님도 허물없이 나 이렇게 무식하다고 웃지 말고 내가 이해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글을 쓰기도 하면...(사례8).

하지만 사례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학습동료나 교수들의 댓글을 통한 인정과 지지경험은 새터민들이 사이버 학습에 흥미를 일으키게 하는 듯하다. 이러한 댓글로 인한 긍정적 경험을 한 새터민들은 게시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학습의 어려움이나 지금까지의 삶을 노출을 토로 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이버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학습상황에서 남한사람들에 비해 형편 없이 무지할 것이라는 부담감에서 해방되는 지지와 격려의 댓글경험은 남한 학습동료와의 대인 교류 기피에서 적극적인 학습교류 참여의 형태로 이행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에 **과목 같은 거는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이 과목 너무 좋다고 **글을 한번 올렸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사이버로 공부한다는 것이 긴가민가했어요. 등록을 해서 듣고는 있지만 이왕 배웠으니 알아야 되는 거고 해서..댓글을 올려보는데..**쪽에 부지런히 제가 댓글을 올리는 것은 너무 좋은 거 있지요. 나이가 있지만 지금 공부하는 거 축하한다고..거기에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댓글 달아줬어요. '내가 뜨거운 것 같다.' 근데 그게 정말 기분 좋은 거 있지요. 칭찬받은 거 같고, 아이처럼 기분 좋아지더라구요.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나를 이렇게 봐주는데, 당연히 잘 해야 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사례1).

3.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으로서의 고충

1) 새터민 사이버 학습에 대한 충고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으로서 새터민 이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많은 학생들은 새터민이라는 정체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새터민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학업에 대한 포부나 적극적인 학습 도움요청을 하고 남한의 지지체계를 확보해나간다. 새터민이라는 정체성을 밝히고 자신의 학업포부를 당당히 드러내는 것은 정체성을 숨기고 은폐시키는 것으로 인한 소극적 학습태도보다는 오히려 학업에 몰입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하는 한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듯하다.

이제처럼(: 지금처럼) 자기소개서에 새터민이라고 올렸어요. 저는 새터민입니다. 그런데 남한사회에 와보니깐 정말 발전된 사회를 볼 때, 내가 좀 뒤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내 자리 그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싶다고..그래서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고..좀 부족한 것도 많지만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많은 힘든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나 희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고..썼지요. 그랬더니 교수님들도 오..정말 훌륭합니다. 수고했다고. 하지요. 저는 아예 그렇게 공개했어요(사례1).

또한 새터민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는 학습동료들에게 새터민이라는 신분을 알리고 상호 교류를 통해 남한사회의 편견을 해소시켜나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이버학습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칫 잘못 하면 중도탈락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새터민들이 학업중단은 곧 새터민의 이미지와 결부된다고 말한다. 새터민들은 사이버학습은 스스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더욱 더 학업에 대한 포부와 열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사례 10은 자격증 취득이나 학위 취득의 목적보다는 자신들이 왜 사이버대학을 가려고 하는 지 어떤 배움을 목적으로 진학을 하였는지 배움에 대한 순수한 학업충고를 하고 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 하면 이거 안다니는 것보다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일반 대학 다니는 사람보다 사이버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심리적 부담이 더 할 거예요. 아마. 의지도 더 필요하고. 자기 통제안하면 그냥 강의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체크만 해도. 대학은 무조건 가야되잖아요. 어차피 들어야 되고, 진도는 나가니까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지식이 그만큼 늘잖아요---중략---일단은 사이버대학 가는 목적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학이 하도 많은데 왜 딱 사이버 대학이나. 그거 목적을 자기가 알고 가야죠. 남들 다 사이버대학 다니니까 나도 사이버 대학 다니야(다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사례10).

2) 학업스트레스

새터민 사이버대학생들은 사이버 학습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레포트 시기를 놓치거나 시험을 치르는 방식을 알지 못하여 초기 학습적응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사례 8은 특히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으로서 레포트, 멘토,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남한의 학습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입학 후 1, 2학기는 학습적응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한다.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 교수님들이 쪽지를 해서 글을 보내는 것을 이해를 못 했어요. 그다음에 중간고사요 기말고사요 그 말조차도 이해를 못 했어요. 기술하는 것이 뭐고 레포트는 뭐고 북한말로는 기술하라는 것이라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인가? 리포트 보러 뭐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사 내가 하나하나 그런걸 알자고 적어주니까 배우는 과정이 이제사 알아요 2학년 2학기 되니까 이제사 그 뜻을 이해해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1학년 2학기 때 그 시험을 완전히 선생님 알다시피 학년을 올라갈까 말까 하는 정도의 성적이 나왔어요(사례8).

새터민들은 남한의 레포트라는 것이 북한말로 하면 “어떤 주제가 돼서 어떤 구절을 축소해야 되는지..소 논문을 말하는 건지” 레포트 작성 방식을 잘 몰라 레포트 작성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레포트 작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의 레포트란 어떤 형식으로

작성이 되고 어느 수준인지를 타진해보는 모색 과정을 탐색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싶다가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눈치 보고 안하다가 나와 짝이 된 사람한테 그냥 전달했어요. **전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요 하다가는 레포트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나는 **전자에서 일한 적도 있고 해서 그냥 경험을 적었다 했더니 내가 쓴 걸 보더니 잘 썼네 하더라고요. 내가 안한 거는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내 짝만 알고...그런데 막 어이 없이 제출하면 기가 딱 막혀 할까봐 어느 정도인가 하고 타진해본다고... 제출을 못했고, 그런데 제출한 거를 보니까 아!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사례1).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인한 학업부담이 있고, 이로 인해 시험에 대한 부담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업의 장애요소

성인학습자로서 나이에 대한 학습 부담과 학업과 직장생활병행의 어려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학업의 장애요소로 부각되었다. 새터민들은 배우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만, 조금 더 젊은 나이에 남한에 와서 배우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나이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자녀양육이나 남한의 직장생활과 동시에 학업을 병행하다보니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려니 시간을 내어 강의를 듣기도 빠듯하고 학업내용을 따라가기도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제가 음.. 열시 끝나거나 열한시 끝나면 그저 한 두 시간 정도 하구요. 점심시간에 세시부터 다섯시까지 휴식시간이거든요. 그때 졸리지 않으면 한시간쯤 보고... 어차피 일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다자는 시간인데...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식당일이라는게 또 노가다잖아요. 그냥. 도중에 막 다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사례10)

4.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을 위한 고려사항

1) 새터민을 위한 배려 요구

남한의 대학문화가 낯설은 새터민 사이버대학생들은 새터민들이 사이버 학습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대학생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에게는 엠티, 멘토 등의

낮선 대학생활 용어나 시험방식, 레포트 작성방식, 사이버 학습에 필요한 사이버 공간의 이해를 포함한 사전교육이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일부 새터민들은 사이버대학생활에 기초되는 교양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사례3은 무엇보다도 새터민에 대한 학교의 작은 관심과 지지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새터민들에게 학교가 보내주는 따스한 관심은 이들에게 학업을 지속시키고 남한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주는 데 힘이 되는 듯하다.

그런데 그런 모임을 가는데 아이들이 애프터라는 게 뭐이고 멘토 라는 게 뭐이고 그런 술어가 다 써져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 술어를 써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한사람에게 번역을 해서 말해 달란 말입니다(사례8).

저기서는(북한에서는) 하겠으면 말고 하겠으면 말고 하지 말고..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편견 가질 수 있어요. 너네는 공부 아무리 해도 써먹을 때도 없고. 너네 좋아서 공부할 테면 하고 말려면 말고 무관심 하면 솔직히 용기 냈다가도 에휴! 내가 이거 해서 뭐하랴..써먹을 수 없어도 공부하면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다는 한 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들만의 도움이라는 게 크게 보다는 한 학기 한번 정도래도..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사례3).

2) 효과적인 사이버학습을 위한 선행조건

많은 새터민들은 남한에서의 생활이 안정될 때 학습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한다. 남한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학업을 병행해가며 자신들의 꿈과 목표를 추구해나가고자 하는 새터민들에게 경제적 불안정은 학업을 포기하게도 만든다고 한다.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재북 및 재중 가족 부양을 함께 해야 하는 새터민들의 경우, 경제적인 활동과 학업지속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할 것이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생활의 안정이 되어져야만 한다. 새터민들은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학습을 하기란 참으로 힘들다고 말한다. 이에 사이버대학 입학 전에 직업훈련이나, 개인 학원,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서 워드프로세서, 엑셀, 컴퓨터 활용능력과 같은 컴퓨터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전 컴퓨터 교육을 통해 컴퓨터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이버학습의 기초가 갖추어지는 듯하다. 한편, 새터민들은 남한입국과 동시에 학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남한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학습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따라 하기가 쉽다고 한다. 사례 7은 특히, 남한생활 경험은 남한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게 만들고 문화나 사회생활의 안정감을 주게 하며, 남한에서 경험한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 경험에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학업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그분들 위해서 따로 뭐 이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어느 만큼 이해하고 들어올까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와서 그런데 뛰어들기 보다는 1,2년 정도 이사회에 적응하고 그래도 말귀도 대충, 아무리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 못 알아들을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1,2년 정도는 여기 적응된 다음에 해야만 나한테도 어느 정도 살이 되는 거지 전혀 모르고 시간 때우기만 해서는 그리고 그런 거는 서로 정 바쁘면 알아봐서 전화해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자기 공부는 아니죠(사례7).

5. 새터민의 학업스타일

1) 선호하는 사이버강의 형태

새터민들의 학업스타일은 성인학습자로서 실제 사례중심의 설명방식이나 어려운 말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천천히 설명해주는 교수방식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하였다. 남한 언어에 익숙하지 않는 새터민들이 학습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지식분량을 소화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너무 현학적이고 어려운 학습내용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새터민들의 지식습득의 목적은 남한사회 적응에 더 큰 우선권을 두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예시의 제공이나 새터민 학습자 수준의 눈높이에 맞게 차근 차근 쉽게 설명해주는 교수 스타일을 선호하게 만드는 듯하다.

저희는 원래 자기 영어대로 설명하면 아무 귀에도 안 들어 오거든요. 그걸 쉽게 설명해주게 되면 들어오거든요. 돈을 예를 들어서 십 만원을 넣었는데 내가 내일 십 만원을 뽑을 거다, 그래도 그 하루 이자를 쳐 준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주면 귀에 쪽 들어오거든요. 아, 일반 은행에서 하는 건 그런 게 없는데. 그렇고 뭐. 예를 들게 되면 CMA RP라고 하게 되면 그걸 설명해주는 걸 알아서 쉽게 설명해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런 게 고객 돈 가지고 임시로 굴리다가 아무 때나 환매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주게 되면 저희도 귀에 쪽쪽 들어오게 되죠(사례10).

또한 사이버학습 형태 중에는 칠판강의나 동영상 강의와 같이 정적인 강의보다는 교수자의 움직임이 있거나 시각적인 학습내용이 집중이 잘 되고, 보다 더 잘 기억이 된다고 하였다. 오랜 기간 주의집중 하기가 힘들고 남한의 학습언어 이해가 어려운 새터민 성인학습자들에게 시각적 자료 제시는 장기기억에 보다 효과적인 학습매체인 듯 인상을 받았다.

2) 선호하는 학습형태

새터민들은 학습을 할 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듣는 학습활동을 추구하였고, 실 생활에 도움이 되고 현실하고 많이 밀착된 강의,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된 실제

적인 강의에 보다 더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집중하였다. 다른 남한사람들이 서너 시간 만에 듣고 이해하는 내용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스스로 이어폰을 꽂고 듣고 또 듣기를 반복 하여 듣다보면 이해가 된다고 한다. 또한 사례 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남한의 자활은 북한의 당일꾼들의 개별교양”과 같이 남한의 전공 용어의 개념을 이해할 때 북한에서 경험했던 내용과 관련시켜 남북한 비교설명을 통한 이해방식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다고 말한다.

이제처럼 여기서 자활센터다, 자활센터다 하면 북한에서 낙오자를 교양하는 기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북한에서는 낙오자 교양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렇게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개별 교양이라고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당일꾼들의 개별교양, 이렇게 해놓으면 자활이란 이기 딱 맞아떨어집니다(사례9).

3) 효과적인 학습방식

새터민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방식으로 활용되는 학습기술은 시각적인 요점 정리나, 시각적인 자료, 메모를 활용해서 보는 방식 등을 통해 기억하였다. 사례 4는 이러한 학습방식에 대해서 “귀에는 안 들어와도 계속 훑어보면 머리에 저장 된다”고 표현한다. 낮은 학업 방식과 생소한 교과목,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새터민들에게 시각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듯하다.

자꾸.. 훑어보라. 훑어보면 눈에 들어오고, 귀는 안들 어와도 머리에 저장되거든요. 내가 10문제 봤다면 1문제는 되요. 100문제 보면 10문제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상당한 지식이고 쌓이는 거잖아요. (사례4)

일단 메모지를 준비하고.. 메모지를..그다음에는 전화기도 옆에다 딱 켜놓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라고..일단 메모지지요. 메모지고..강의 다 들은 다음에는 프린트할 종이를..저는 이면지를 쓰거든요. 애가 쓴 종이 랑 나머지는 다 모아서..프린터를 해놓고..그걸 다 준비해놓고..모르는 거 있으면 메모해놓고..그걸 또 물어보고..(사례3).

학습에 임하는 사전 준비행동으로는 미리 학습내용을 프린터 해서 훑어보고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였고, 일부 새터민들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조금 더 배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새터민들에게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학습습관을 가져오게 하는 듯하다.

예전부터 기초가 있었으면..처음으로 하다보니까..자꾸 읽어요. 어떤 교수님들은 중요한 거란 거를 동그란 거로 표시한 거 있어요. 아..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구나 차례표 있잖아요. 목차도 도움이

되더라구요. 목차에 있는 거 --년부터 --년까지 사회보장제도 언제부터 시작되었고..딱 체계를 써 가지고..(사례4)

6. 새터민의 학업 동기유발

1) 필승적 각오와 부단한 노력

새터민들은 힘들어서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는 무엇보다도 꼭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 이들은 “힘들어도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생각하지.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그만두고 싶다고보다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힘들어도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생각했지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자체도 안하죠. 그건 저 생각이요 다른 분들 모 하다가 **과목 에이 걷어치우자 같은 생각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밖에 걷어치우자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사례6).

새터민들은 늦은 나이에 남한의 학습을 배워야한다는 학습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연연해 하지 않고 늦은 나이에 할 수 있다는 배움에 대해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남한의 학습동료들을 보면서 자극이 되기도 하고, 나이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서두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새터민들은 남한사람들이 공부하는 분량의 몇 배는 더 해야 한다는 각오로 학습에 임하였다. 따라서 밤잠을 자지 않고 학습에 임하거나, 직장에서 짬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단히 학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사례 4는 공부에만 매진하다 보니 어디를 가더라도 학습한 내용이 머리 속에 떠오르고, 공부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 세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공부하면..아! 뭐라고 그러더라? 한국말로 뭐라고 하던데..내 공부하다보니, 화장실 가도, 중국어 글이 자꾸 머리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정신과 갔을 때 뭐라고 하던데..아뭏든 병중이지만 나쁜 거는 아니고 좋은 건데..어쨌든 공부에다 자기가 집중하니까 그 세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이번에는 아! 중국어 중간고사 하면..내가 하는 거는 자꾸 봐야 되..자꾸 화장실 가셔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누웠다가도 자꾸 책이 생각나가지고..교재를 가져와가지고 아..그랬지..(사례4)

2)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학업의 즐거움

북한이나 남한에서 학업에 대한 성공경험을 한 새터민들은 학업에 대한 동기유발이 훨씬 더 강하였다. 북한시절 우수한 학업성적 경험에서 얻은 공부 방법을 쓰기도 하였고, 남한에서의 우수한 학업성적 경험이 이들을 더욱 자신감 있게 학업에 임하도록 하는 듯하다. 특히, 사례10은 “혼이 빠진 것처럼 밤을 새워서 학업에 몰입하다 보면 쾌락 같은 걸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새터민들에게서 학업성취를 통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성공적인 학업경험은 새터민들에게 분명 성취감을 유발하며, 부단한 자기계발과 배움에 대한 순수열정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듯하다.

사람이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쾌락 같은 거 느끼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내가 배운 **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 만들고 있잖아요. 막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밤 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게 되면. 근데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거는 밤새요. 싫은 거는 뭐 하라고 해도 한 시간도 못하는데. 이런 **작업 같은 거 막 짚은 거 놓고서는 편집할 때는 사람이 거기에 혼이 빠졌다고 할까요? 세 시간, 네 시간 그저 밤 새벽 세 시, 네 시까지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서 뭐 쾌락 같은 걸 느끼죠(사례10).

7.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지지체계

1) 오프모임에 대한 견해

정보에서 소외된 새터민들은 사이버 환경이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만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오프모임을 통해 정보교류도 하고 학업에 대해 느끼는 망막한 심정을 함께 나누면서 학업의 고충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자신들과 비슷하게 사이버 학습을 하고 있는 새터민들과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였다. 이렇듯 새터민들에게 오프모임은 학습에 대한 정보교류 및 학습에 대한 지지체계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나, 마음을 쉽게 열기 힘든 이들에게 우리사회가 보여주는 새터민에 대한 편견이 더욱더 참석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마음을 열고 가서, 막 교수님이랑 친하고 이래야 하는데, 저희는 진짜로 사귀고 싶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하고 막 친해지고 싶고, 막 이런데 저희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겠어요. 솔직한 말로. 왜냐면은 저희도 일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모욕 받는거. 저희 말하면 앞에서 막 사람 면전에다 놓고 흉내 내요. 식당에서. 그때 보면 저희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보겠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를 보면 불쌍하다고 보니까. 동정을 하든, 우습

게 보든.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가도 어차피 그런 일을 당할 건데... 그러니까 될수록 지도 피하지요.(사례10)

또한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빠듯한 남한생활이 새터민들에게는 오프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약이 되고 있다. 사례 6은 특히 북한의 모임이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조정이 쉬운 반면,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함께 절충하여 오프모임 일자가 정해지면 이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다. 새터민들에게는 단순한 오프모임이 아니다. 오프모임에서 남한 학우들과 마음열기까지도 어렵고 새터민이라고 했을 때 비추어지는 편견에 맞서기도 힘든데다가, 빠듯한 남한 살이에서 오프모임 시간에 맞추어 이동하기까지의 심적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 듯하다.

아 내가 참 여기서 생활하기 힘든 건 시간 내기 힘들더라고요. 동호회모임이 있어도 모임이 내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 맞추는 게 힘들어요. 북한보다 더 힘들어요. 북한은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은 시간조정이 쉽죠. 여기는 다양하고 거리도 멀고... 어렵다 그렇지만 동호회모임도 문화니까(사례6).

2) 학습에 대한 가족의 역할

지지체계가 미약한 새터민들에게 가족은 힘든 학습을 지속시키게 하는 강력한 지지체계가 되고 있었다. 자식, 배우자, 형제자매들은 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좋아하고 매우 뿌듯하게 여기며, 사례 3이 “이 남한사회에 와서 진짜 살자고 하는 구나!”라고 표현하는 바와 같이 남한사람들과 뒤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가족의 지지는 때로는 가족들끼리 서로 학습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공부한 경험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도 한다.

일단, 자기 마음이 좋겠지요. 엄마가 공부하니까..이 사회에 와서 그저 진짜 살자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식구가 남보다 그게 그래도 뒤지지 말아야 된다. 일단은 공부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애도 참 좋아해요(사례3).

3) 힘이 되어주는 멘토

새터민들은 학습자로서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자신들의 학업의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멘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멘토는 망막한 사이버학습에 있어서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든든한 의지가 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새터민으로서 효과적인 남한의 학습방법이나 학업에 대한 포부, 학업의 위기 극복 방법 등을 새터민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새터민 멘토 활동을 기꺼이 하고자 하였다. 성공적인 사이버학습을 경험한 새터민 선배들은 새터민 후배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보완적인 그런 멘토가 정말로 중요한 거 같아요..그렇게만 해준다면 정말 남한사람들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시작을 하면 잘 하잖아요,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걸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한 거 같아요(사례5).

8. 새터민 사이버학습의 기대효과

1) 사회적 성취 관문의 역할

사례 5는 정보화 시대인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것이 남한사회 적응의 필수요건이라고 털어놓는다. IT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터민들은 컴퓨터를 알고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력했고, 이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은 남한사회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자본과 정보지식 습득 능력이 부족한 새터민들에게 컴퓨터 학습방식인 e-learning은 사소한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는 남한의 정보화 사회를 생생하게 경험함과 동시에 남한생활 경험 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기초 지식도 익힐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컴퓨터를 우선 능숙하게 다뤄야 하구요, 정보화 시대니까, 그리고 한국은 인터넷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인터넷에서 알아보면 되는데 그게 아마 새터민들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이버에서는 그거에 익숙해지니까..(사례5).

사례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새터민들에게 사이버학습은 남한의 경제적 안정이 주는 안주한 삶에서 만족하지 않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꿈과 목표 추구의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부단히 계속해서 자기 계발을 해야 하는 남한사회에서 사이버 학습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남한의 정보습득 통로를 익히게 하고 사회적 성취를 쉽게 이룰 수 있는 관문이 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는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꿈과 목표 추구를 위한 지속적인 자기계발은 보다 의미있는 자아실현이 가능하게 하는 듯 하다.

분명 그거예요! 저는..분명! 저는 그래. 뜻이 멀어진 애들(새터민 동료)한테 그래요. 야~생각해봐

라. 너 네 여기 와서 하루 밥 먹고 이려고..남한 땅에 와서 밥이나 먹고 그러자고 왔느냐..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와보니까. 그저 와서 무의미하게 홀 난 보내고 싶지 않다고... (사례3).

2) 사이버학습에 대한 전이

사례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새터민 학습자는 가족 내의 모델링이 되어 다른 가족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모습을 따라하거나, 새터민 학습자처럼 되고자 하는 학업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학령기의 자녀를 둔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 부모님의 공부하는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귀감이 되어 자녀양육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가 하루는 뭘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 딱 덮어버리고..그래서 다른 것 하는가 해서 그게 뭔데? 하고 봤더니 글썽 내 책을..그래서 너 이 책을 왜 보니? 하니깐 어머니 공부하는 게 뭔지 궁금해서 그랬다고..그러면서 엄마 책 나중에 자기한테 주면 안되? 이래요. 기가 막혀 했더니..엄마 공부하는 거 자기도 나중에 자격증 따겠데요. 나한테도 가르쳐 줘 하면서..내 공부를 자기도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중략) 저녁에는 내가 책을 보다가 잠들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제 따라 해요. 자기도 옆에다 책을 갖다 놓고 안보더라도 훑내 내요. 책 보고 그러다가 자고.(사례1)

사이버학습을 체험 한 새터민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의 가족에게 사이버 학습을 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학습에 대해 경험한 것을 서로 도와주거나 상의하는 모습이었다. 새터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사이버학습을 새터민들 동료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학습을 권유하기도 한다. 새터민 동료들이 원하는 사이버학습은 무엇보다 새터민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주고 있는 듯하다.

3) 사이버대학의 잇점

사이버학습은 새터민들에게 특히, 많은 잇점이 있어 보인다. 학업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학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에 공부할 수 있으며, 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사이버학습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특히,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교육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새터민들에게 남한이 주는 학습에 대한 기회이며,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고마워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근까... 이제처럼 오프라인으로 가서 공부하면 그 시간이 끝나면 질문을 못해.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러나 사이버는 내가 듣고 이해 못되는 것 다시 들어. 반복. 이게 더 이득입니다. 이게 공부에 더 도움이 돼요(사례9).

뭐 사이버는 공부는 무료로 하는 거고..그거 하나만 해도 제일 조건인데...그게 풀리잖아요. 사이버대학교에 바랄 게 없어요.(중략)우리 사람들한테는 진짜 제일 큰 조건이 경제적인 것 같아요. 그걸 한쪽으로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깐..그러니까 요구 조건이라는 게 뭐 더 있을래야 없지요.(중략)어떤 점이 불편하지 않는가 하면, 우선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사이버대학이니까. 내가 자유로운 시간에 할 수 있고, 잠을 안자고도 들을 수 있잖아요. 새벽 한 시고 두 시고, 사이버 아니고 오프라인이면 그렇게 못 그러잖아요. 사이버는 그게 진짜 너무 좋아요(사례3).

한편, 사이버학습은 학습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는 남한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비교적 덜 부담되는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서 하는 것이 편리한 남한의 사이버학습은 새터민들에게는 학업에만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사례 5가 말하는 것처럼, 남한의 학습동료들과의 인간관계를 신경 쓰면서 학업을 따라가야 하는 이중고를 지닌 남한의 일반대학생들과는 달리 새터민 사이버학습자들은 순수하게 학업에 전념하기가 더 쉽다.

모든 게 서툴잖아요. 서투니까 아, 이 컴퓨터는 나만 잘 하면 되겠구나, 저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갔다나요. 일반대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사람 대하는 것도 어성버성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만 잘하면 된다(사례5).

4) 새터민 역할의 중요성

사이버학습에서 나타나는 새터민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통일에 대한 준비과정으로서 새터민들의 역할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새터민들은 자신들이 학습을 통해 익힌 남한의 지식과 가치를 통일 이후 북한주민에게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명감이 강하였다. 또한 이들은 게시판이나 토론방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북한의 문화를 알리는 설명하는 북한문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새터민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통일 이후 남북한 문화연계인의 역할을 실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의미를 모르고, 말이 민주주의지 봉건사회보다 못한 사회니까..아 무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되면 인터넷, 컴퓨터 같은 것을 활용해서 세계 과학이다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싶고...자원봉사란 것도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싶고 해서..자본주의라는 것도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싶고 해서..우리가 참 통일이 되면 어떻게 보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사례2).

저는요. 게시판에 들어가서 교수의 질문을 딱 보면, 청소년들의 옷차림 문제, 이런게 딱 뜨면 북

한을 갖다 딱 집어넣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쪽 분야, 어쨌든 저는 그런 그계 토론방에 들어가서 다 북한을 설명해 줍니다. 남한 대 북한,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사례9).

5) 학습의 부수적 효과

새터민 성인들은 대학생이라는 것 자체에서 오는 자긍심이 있고, 새터민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며, 이러한 자긍심이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또한 새터민들은 사이버학습을 통해 성인으로서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기초 교양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용어에서부터 예절, 재테크와 같은 경제 상식에 이르기까지 사이버학습을 통해 익힌 다양한 교양관련 기초 지식은 남한사회에서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듯하다.

그렇죠. 그분들도 생활적으로 인식이 된 거니까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정의를 알고프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인식이 들어온단 말예요 티켓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이번에 에티켓을 배우면서 동서양의 예절에서 에티켓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확하게 정의를 때려준단 말예요 에티켓이라는 말이 프랑스... 어원부터 배우니까 에티켓도 외래어인데 그걸 안단 말이에요(사례6).

사례 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내색조차 못하고 지나쳐야했던 몰랐던 부분을 배워서 알게 되면서 업이 되고 얘기하면서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말한다. 새터민에게 있어서 사이버학습의 결과는 대학생이라는 자부심과 동료 새터민들의 부러움,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 되는 지식의 습득, 대인관계 자신감과 같은 보다 큰 부수적 학습 결과를 가져온다.

음...글쎄 어찌됐든 뭔가를 배웠으니까 제가 좀 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도 자신감 같은 것도 있었겠죠. 왜냐면 여기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얘기하다보면 용어 같은 것들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모르는 것처럼 하면 좀 내색안고 모르면서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몰랐던 부분에서 그 부분을 배웠으니까 업이 되었겠죠. 얘기하면서도 자신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어차피 또 우리 사람들에게 배워주는 입장에서도 뭔가 내가 알았으니까 그들한테도 설명도 좀 했을 것이고 예(사례7).

IV. 논의

본 연구는 새터민의 사이버학습 경험에 대해 10명의 새터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터민의 사이버학습 경험의 이야기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새터민 사이버학습 경험을 분석한 결과 8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낮은 남한의 교육체계이다. 새터민들은 남북한 교육문화의 차이, 남북한 언어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한의 교육체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국의 이주난민이 학습상황에서 문화적 어려움과 더불어 학교의 교육환경이 다름으로 인해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Bemak와 Chung(2002)의 연구결과나, 북한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낮은 대학체제와 내용,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특히 영어 및 남쪽한 학습방법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는 이해경(200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하지만 이주난민의 경우, 학업성적의 평가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적응의 문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Bemak와 Chung(2003)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결과는 객관식 평가에 대한 수월함을 강조한다. 이는 북한의 암기식 교육에 비해 자신들의 경험을 유추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객관식 평가가 새터민 성인의 사이버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새터민 청소년들이 교육내용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 부족 뿐 아니라 교사의 설명과 암기 풍토에 익숙하여 남한의 자율적인 교수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다는 최경자의 연구결과(2008)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새터민 성인 학습자의 경우, 청소년과는 달리 자기주도적인 학습형태를 띄며, 따라서 자율적이고 다양한 남한의 학습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새터민들은 남북한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언어의 차이, 영어나 외래어식 표현 때문에 남한의 학습체계가 더욱 낯설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장벽이 이용가능한 정보원의 범위를 제한하며, 이민자의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시킨다는 Roh(2002)의 결과나, 새터민의 정보 빈곤 유발요인이 언어소통 능력의 부족도 있다는 조용완(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새터민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습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제시한, 단어검색창과 같은 「단어학습보조 장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습자가 한국의 사이버학습을 익히는 데 보다 효율적인 학습지원체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상황에서의 대인관계 특성이다. 교수의 존재가 매우 큰 영향력을 주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에 있어서 교수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Coleman(1988)이나, 새터민 고등학생이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듯이 학생을 믿어주는 교사로부터 끊임없는 자극과 격려를 받는 경험이 있다는 강희석(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교우관계 경쟁문화에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로 남한동료들과의 동등한 경쟁을 추구하고, 동료인정에서 큰 기쁨을 경험하며 새터민 동

료와 함께 하려는 동료의식이 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정규학교 새터민 청소년들이 새터민에 대한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태도에 대해 거부감을 준다는 이수정 외(2008)의 결과와 유사하게 학습상황에서 새터민들은 차별적 시선보다는 동등하게 경쟁하고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새터민들은 학습상황에서 물어 볼 내용이 너무 많고 일일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프리카 출신의 유학생이나(Constantine, Kindaichi, Okazaki, Gainor, & Baden, 2005) 한국의 중국 및 일본 유학생들이(김영경, 2009) 도움요청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결과들이 소극적인 도움요청에 그치는 반면, 본 연구결과에서 새터민들은 사이버학습 상황에서 간접적인 소통방식이지만 보다 안정적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지노출에 대한 걱정은 공식적인 사이버교류를 기피하게 만들었고, 일부 댓글을 통한 인정과 지지경험을 한 새터민들만이 게시판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학습의 어려움이나 자신들의 삶을 노출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새터민 학생들은 학업수준이 너무 낮아서 창피를 당할까봐 못하고 있으므로 교사가 먼저 다가가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한상훈(2005)의 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학습 초기 적응과정에서 새터민들은 무지노출의 부담감으로 공개적인 사이버교류를 기피하고, 교수와의 관계에 보다 의존적이지만, 댓글을 통해 학습동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경험을 한 새터민들은 적극적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흥미, 몰입, 동기요인이 공동체 구성원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느끼는 집단유대감,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집단 존중감, 집단영향력, 소속된 공동체 내부 구성원과의 동질성을 느끼고 공유된 활동을 하려고 함으로써(황상연, 2005), 사이버 공간의 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으로서의 고충이다. 새터민들은 나이와 자녀양육, 직장병행으로 인한 학업부담이 학업의 장애요소가 되기도 하고, 사이버 학습 환경 이해와 언어소통,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초기 학습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레포트 작성 방식 이해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새터민 대학생이 학업과 정보습득 능력의 한계나 학업과 경제적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대학생들의 어려움이라는 조영아와 전우택(2004)의 연구결과나, 새터민 학생의 학습 부적응이 기초학습능력 저조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크다는 김미숙(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사이버 대학으로 진학을 한 새터민들이 대부분 나이, 자녀양육, 직장병행과 같은 학업장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높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지식층으로서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으로서 새터민 이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새터민 정체성을 밝히고, 사이버학습은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학습에 대한 관리를 해

야 한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한계가 있음을 우려하였다. 새터민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학업에 대한 포부나 적극적인 학습 도움요청을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새터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도 했으며, 남한의 지지체계를 확보해나간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학교 새터민 청소년들이 문화자본 부족에 대한 대처전략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탈북자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대학생활에서의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이들로부터 다양한 지지체계를 확보한다는 이수정 외(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새터민 청소년들이 또래관계나 지지체계 확보를 위해 정체성 드러내기를 하는 것과는 달리, 새터민 성인학습자들의 경우 입학원서에서부터 새터민으로서의 남다른 학업포부를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학습도움을 요청하고, 새터민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새터민 사이버대학생을 위한 고려사항이다. 남한의 대학문화가 낮은 새터민 사이버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와 새터민을 위한 맞춤형 특별 교과목 개설, 새터민에 대한 학교의 관심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에 재학 중인 새터민을 위해 대학 입학 전 대학생활 관련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예비대학 프로그램이나 학습지원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이수정 외(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새터민 사이버학습을 위해, 초기 학습적응을 위한 학교의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터민들이 경험하는 초기 학습의 교육 간극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한의 학업체계(예: 학점체계, 수강신청 방법, 시험방식,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이해, 남한의 사이버학습에 필요한 기초 교육 용어 익히기(예: 레포트, 퀴즈, 멘토, 엠티, 팀 프로젝트), 대학생생활 소개(예: 수업장에 해결방법, 오프 모임, 동아리 활용, 스터디)를 포함한 동영상 「사이버대학 생활안내서」의 개발이나, 이를 위한 입학 초기 사전 모임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새터민이나 문화적 소수자 학생을 위해서 각 사이버대학교에서는 「대학에서의 글쓰기」, 「사이버 공간의 이해」, 「컴퓨터 활용 기초」 등이 신·편입학생 필수 교양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터민의 효과적인 사이버학습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우선이고, 사이버 학습의 기초로서 컴퓨터 활용능력, 사전 학습으로서 남한생활 경험이 중요하며, 사이버학습의 동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에 대한 열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학습에 있어서 자신들의 요구와 능력, 자기 주도적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경험을 사용하는 것, 학습 준비도를 확인하는 것, 유소년 시절부터 사춘기까지 꾸준히 증가한 학습주변 삶의 문제들과 청춘기 동안 급격히 증가한 것을 체계화하는 것이라는 선행연구결과(Knowles, Holton, Swanson, 1998; 김영천, 2009)와 일치한다. 하지만 새터민에게는 학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남한생활 경험을 통해 배움의 필요성도 절실해지고 그때의 경험이 중요한 지식 습득의 원천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일부 새터민들이 지원 수당금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통해 평생학

습을 하는 것과는 달리, 사이버학습은 더욱이 배움에 대한 순수한 목적이 있고 학업에 대한 열의가 뚜렷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충고한다. 이러한 효과적인 사이버학습을 위한 선행조건은 새터민을 선발하는 사이버대학교에서 이들이 학업에 중도탈락하지 않고 성공적인 학습을 이룰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이다. 또한 새터민 사이버학습 선배들의 성공 경험담과 관련된 책자 발간은 추후 새터민 사이버학습자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새터민의 학업 스타일이다. 선호하는 강의형태는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방식이나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설명해주는 방식과 칠판강의 및 동영상과 같은 시각적이면서도 동적인 사이버 강의형태를 선호하였다. 낮은 교과목과 학업방식 차이, 남북한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안 되는 문제로 인해 학업부담이 심한 새터민들에게 효과적인 학습기술은 시각적으로 기억하는 방식이었고, 학습이해를 위한 노력으로 학습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체계적인 학습 습관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수자의 강의 스타일이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몰입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정혜진(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교사가 새터민 학생 수준을 파악하여 쉬운 언어로 천천히 말했을 때 학습이해가 잘 된다는 김선훈(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선호하는 학습형태는 반복학습과 실제적인 강의 내용 집중, 남북한 비교설명을 통해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스로 컴퓨터 기능을 조절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웹 강의 방식보다는 북한시절 주된 학습방식이었던 칠판강의에 대한 익숙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터민의 언어실태 조사결과(문금현, 2006), 새터민들은 실제 생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자료들, 즉 동영상 자료나 드라마, 담화 내용들의 실제적 교재나 수업방법이 필요하다는 최경자(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학업스타일은 북한의 교육방법인 깨우쳐주는 교수법과 원문 통달식 교육방법에 익숙한 결과로 보인다. 깨우쳐주는 교수법이 이야기, 담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잘 하는 방식이며, 또한 원문 전체를 암기하여 기억하는 방법으로 혁명역사, 당 정책, 국어과목에서 많이 사용되는(한만길과 현주와 김창환 및 오기성, 1999) 원문 통달식 교수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시절 학습경험을 남한의 새로운 학습내용과 비교하며 학습하는 교육경험 자료를 축적한다면, 통일 이후 교육통합에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여섯째, 새터민이 경험하는 학업에 대한 동기유발이다. 학업지속에 대한 강한 의지와 나이를 뛰어넘는 배움에 대한 도전, 부단한 학습노력은 새터민들이 학업을 하는데 촉진요소로 작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북한 교육체계에서 학업 성공 경험이나 학업성취로 인한 기쁨이 크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다. 성인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적 성취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교육에 대한 태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과 성인들이 일생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사건, 변화나 정보요인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상호 관련되며 교육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한상훈(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주난민 청소년들이 학업성공의 가치를 기쁨, 즐거움, 문화적 동화, 사회적 연계

망과 같은 질적인 가치보다는 학업성적과 같은 경쟁적 성공에 두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새터민 성인들의 사이버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몰입의 즐거움이 학업에 대한 동기유발이 되고 있었다. 또한 사이버 강의 학습자가 감정적으로 몰입했을 경우 학습에 적극성을 보이며 학업에 대한 만족도와 사이버 대학의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정혜진(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무엇보다도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부단한 학습노력이 학업에 대한 강한 동기유발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일곱째, 새터민의 학습에 대한 지지 체계이다. 새터민들은 효과적인 사이버학습을 위해서 새터민 동료모임이나 오프모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새터민에 대한 편견, 타인경계의 성향, 시간을 내기 힘든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오프모임을 참석하기 힘들다고 한다. 남한의 학습 동료 지지체계가 미약한 새터민들에게 가족은 든든한 지지역할을 해주었고, 학습동반자로서 함께 학습경험을 공유하기도 한다. 새터민들은 자신들의 학업의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절실하다고 하며, 비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새터민 동료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기도 하였다. 새터민 학습에 있어서 멘토링 제도를 강조하는 선행 연구결과(이수정 외, 2008; 최경자, 2008)와 일치하였다.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오프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는 어렵지만, 새터민의 효율적인 사이버학습체계를 위해 같은 전공의 남한 멘토나 새터민 동료 멘토가 제도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추어질 필요성이 있겠다.

여덟째, 새터민 사이버학습의 기대효과이다. 사이버학습은 새터민들에게 사회적 성취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는 북한의 교육(김평선, 2007)과는 달리,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기개발이 가능한 남한의 평생 교육적 사이버학습의 효과(유평준, 2003)인 듯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새터민에게 사이버학습은 배움을 통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으면서도, 남한의 다양한 상식과 지식을 습득하여 남한의 사회문화를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되었다. 새터민 사이버학습의 가장 큰 효과는 가족 내의 학습모델링 효과와 가족 및 새터민 동료에게 학습을 권유하는 사이버학습의 전이현상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볼 때, 새터민들에게 사이버학습 경험은 가족 뿐 아니라 동료 새터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모범적인 역할 모델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정부의 무료 학습지원제도, 혼자서 학습이 가능한 점, 반복강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열린 학습, 학업과 직장생활 병행이 가능한 사이버 대학의 잇점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편적 대중으로 존중받아야 할 소외된 집단들에게, 정보 접근의 평등성과 민주성이라는 디지털 공동체의 특징이 매우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박기범(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경제적 안정이 우선인 새터민들에게 정부의 교육지원제도를 매우 만족스러워하였다. 그리고 새터민들은 사이버학습의 활용에 대한 기대로 통일 이후 사명감과 북한문화 안내자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는 체험적 다문화 평생교육의 원리와 상이한 문화 집단 간 자유로운 교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호혜적 평생교육의 원리(배영주, 2009)에 비추어볼 때, 사이버학습에 있어서 새터민의 역할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 그밖에도 남한생활에 적응이 되는 교양지식, 대학생으로서의 자긍심, 새터민 동료의 부러움, 앓으로 인한 대인관계 자신감 증진의 학업의 부수적 효과도 가져오고 있었다. 사이버학습은 여성의 자존감 향상,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획득하고 지식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김수아(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새터민들에게 사이버대학에서의 학습은 여러 가지 긍정적 부수적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학습 경험이 있는 5개 사이버대학교의 서울·경기 지역 새터민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새터민 청소년 사이버 학습자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평생교육 기회를 통한 자기계발과 성장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e-learning 운영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대학교의 소수 민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등의 운영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터민과 같은 소수 민족을 위한 사이버 학습 방법, 예비학교 및 대학생할 안내 오리엔테이션 교육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남북교육 문화 통합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남북 통합 e-learning 운영방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류 문화에 통합되고 자기계발에 성공적인 역할모델로서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새터민·다문화 사이버교육 동료 멘토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의 다문화 교육 온라인 교육방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성별이나 발달단계(청소년기, 중년기)에 따른 사이버학습 경험의 의미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사이버대학교 졸업생이 졸업 후 남한의 노동시장에 어떻게 기여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새터민 성인의 진로탐색 과정에 사이버학습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넷째, 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중도 탈락한 새터민들의 중도탈락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상현, 강홍렬, 김은미, 차남경 (2002).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경제적 함의.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강인원, 최지호, 이성근 (2005). 사이버대학의 e-Learning 서비스에서 신뢰 차원이 학교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4(4), 1143-1164.
- 강희석 (2007). 새터민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공회대학교.
- 권성호 (2001). 웹기반 가상교육에서 협력적 상호작용촉진을 위한 학습자 지원전략 개발. **교육공학연구**, 17(3), 29-51.
- 교육기본통계조사 (2009). 교수신문. 2009.11.2 일자.
- 김미숙 (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선혜 (2005).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방안.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수아 (2006). 사이버 공간에서의 “힘 돋우기 실천(empowerment)” 가능성에 대한 연구: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김영경 (2009). 중국·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 분석. **상담학 연구**, 10(1), 535-559.
- 김영천 (2009). 성인학습자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자 특성 분석.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김평선 (2007). 북한의 인권보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 문금현 (2006).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박기범 (2009). 공동체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과제: 다문화교육 사이트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8(1), 45-55.
- 박정희 (2008). 새터민 대학 입시생과 대학생의 생애사를 통한 대학생활 사전 적응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 박하나 (2007). 사회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탈북 청소년의 경험이해: 초입 중학생의평가경험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배영주 (2009). 다문화 평생교육의 정립을 위한 체험적-호혜적 운영원리 탐색.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2(2), 61-87.
- 유평준 (2003). 원격대학원 온라인수업의 학습참여도, 학업성취도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학습자관련 변인. **교육정보방송연구**, 9(4), 229-267.
- 이수정, 김현아, 원재연, 윤상석 (2008). 북한이탈청소년종합대책연구III: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재환, 윤유라 (2005). 외국인노동자 H의 삶과 정보 빈곤. **한국비블리아학회지**,16(1), 181-202.
- 이혜경 (2003).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체험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인성, 최성희 (1999). 온라인 열린 원격교육의 효과 요인 분석. **교육학연구**,37(1), 369-388.
- 정혜진 (2009). 사이버 대학의 e-learning 환경이 학습자의 학업성취감과 강좌 몰입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 사이버 강의 수강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 조영아, 전우택 (2004). 북한출신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16(1), 167-186.
- 조용완 (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와 정보 빈곤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 최경자 (2008). 새터민 학생의 학습 적응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 최상근, 김규태 (2004). 방송통신고등학교 성인학습자의 생활과 문화 특성 분석. **평생 교육학 연구**, 10(1), 101-136.
- 최성우 (2000). 미래사회와 정보화 교육. **서울교육**,15(9).
- 한만길, 현주, 김창환, 오기성 (199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상훈 (2005). 새터민 학생 적응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적응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특별시교육 연구정보원 제27회 교육연구논문.
- 한상훈 (2003).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관계. **평생 교육학 연구**,9(3), 225-246.
- 황상연 (2005). 사이버공간에서의 학습활동 행태 및 학습자 특성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Bemak, F., Chung, R. C-Y. (2003). Working with children and families from recent immigrant groups(2nd ed, pp. 84-101). In P. Pedersen & J. Carey (Eds.), *Multi-cultural counseling in school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Bemak, F., Chung, R. C-Y. (2002).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refugees. In P. B. Pedersen, J. G. Draguns, W. J. Lonner, & J. E. Trimble (Eds.), *Counseling across culture*(5th ed, pp. 209-232). Thousand Oak, CA: Sage.
- Coleman, J. (1988).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Salem, New Hampshire: Ayer.
- Constantine, M. G., Kindaichi, M., Okazaki, S., Gainor, K. A., & Baden, A. L. A. (2005).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the cultural adjustment experience of Asian international college women.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1, 162-175.
- Dixon, J. K. A. (2000). Collaborative Model for the Use of Technology by Preservice and Inservice Mathematics Teachers in Their Teaching Practices. *Center For Teaching Learning Mathematics*, 22(22-23), 100-110.
- Fisher, K. E. (2004). Information behavior of migrant Hispanic farm workers and their families

- in the Pacific Northwest. *Information Research*, 10(1).
- Fulford, C. P. & Zhang, S. (1993). Perceptions of interaction: The critical predictor in distance educ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8-21.
- Herzberg, M. (1998). Having arrived: Dimensions of educational success in a transitional newcomer school. *Anthropology & Educational Quarterly*, 29(4), 391-418.
- Khan, B. (1997). *Web-based instruction*. Englewood Cliffs, NJ: Educational Technology Pub.
- Knowles, M. S., Holton, E. F., & Swanson, R. A. (1998). *Adult Learner*(5th). Houston, Texas: Gulf Pub,
- Lieblich, A., Tuval-Mashiach, R., & Zilber, T. (1998).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lif: SAGE Pub.
- Moore, M. & Kearsley, G. (1993). *Distance Education: A Systems View*. Belmont: Wads worth Pub.
- Printrich, P. R. & Schnuk, D. H. (1996).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NJ: Prentice-Hall.
- Roh, Jin-Ja. (2002). *An investigation of the perceived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and the use of community public libraries among first-generation adult Korean immigrants living in the Dallas, Texas, a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논문접수 2009년 12월 5일 / 1차 심사 2010년 2월 12일 / 2차 심사 2010년 5월 13일 / 게재승인 2010년 6월 5일

* 김현아: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 사이버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는 “새터민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 “새터민의 가족상담 모형 개발”, “남북문화 간 통합을 위한 새터민 조력자의 교육모형 개발”, “북한이탈청소년 종합대책연구III: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 연구”, “이주난민의 정신건강과 상담” 등이 있다.

* e-mail : haha6082@hanmail.net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e-Learning Experience in South Korea

Kim, Hyun Ah*

Purpose: In this paper, North Korean Defector experience in e-Learning is studied.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e main method of research is the in-depth interview. **Method:** The subjects of the interview are 10 North Korean Defectors. For data analysis, which is proposed by narrative analysis, which is proposed by Lieblich, Tuval-Mashiach, & Ziber, has been used. To analysis data, 3 experts based on the Judgements of clinical psychologist, counseling psychologists. **Results:** There were 82 concepts, 24 subcategories and 8 categories extract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ose 8 categories are as follows: North Korean defector's a strange experience about educational system in South Korean, North Korean Defector's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e-learning environment, difficulty of North Korean cyber university student, condition precedents for improving the effect of North Korean Defectors' e-learning, North Korean cyber university student's requirement, study style that North Korean Defectors' preferring, North Korean Defector's learning motivation,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support system in learning environment, the expectation of effect in North Korean Defector's e-Learning.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e-Learning experience, adult education, narrative analysis

*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